동국대 가을학기 불교 관련 박사 논문은

응용불교·불교미술 전공들 '강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윤성이)와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8월 19일과 20일 각각 비대면으로 2021년 가을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불교학과 불교미술 등 불교 관련 박사 학위자가 11명(서울 10명, 경주 1명)이 배출됐다.

올해 가을학기 박사 학위 논문들은 응용불교학과 불교미술 전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산 스님(불교학과 응용불교학전공)은 **'한국불교의 산신신앙과 지장신앙 연구 – 시대적 전개와 변용을 중심으로'**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산 스님은 한국불교 특유의 산신신앙과 지장신앙이 통일신라 이후 시대적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토착신앙으로 뿌리내리며 변용되는 현상을 살폈다.

스님에 따르면 외래 종교였던 불교는 산악을 숭배하는 산신신앙과 융합하며 한반도에 정착돼 갔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명산을 중심으로 사찰이 건립되며, 고려시대에는 오악명산을 받드는 팔관회가 봉행됐다. 조선신대에는 사찰 내 산신각 건립이 급속도로 활발해진다.

고산 스님은 "한국불교의 산신신앙과 지장신앙은 단순히 기복신앙을 넘어 스스로 현세나 내세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중생에게는 절실히 요구되는 불교신앙임을 말해준다. 이는 사회로부터 요청되는 불교의 신앙적 역할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불교의 산신신앙과 지장신앙은 한국불교의 특수성과 독창성을 내포한 앞으로도 이어져가야 할 한국불교의 문화유산이며, 불교의 종교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신앙"이라고 주장했다.

윤성 스님(선학과 응용선학전공)의 박사학위 논문 **'기도집중수행 프로그램 개발 – 관음기도를 중심으로'**는 스님이 재가불자들과 함께 관음기도 집중 수행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자들이 체험한 내용을 학문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관음기도 집중 수행프로그램에 참여한 재가자들은 관세음보살 칭명을 통해 관세음보살의 가피에 대한 종교적 체험이 일어났으며, 본래 마음자리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는 그간 자신을 괴롭혔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음이 논문을 통해 보고됐다.

윤성 스님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도를 하였을 때의 자각이야말로 경험의 무상성을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주의의 기초가 되고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의 자세가 고취되며 결과적으로 고통의 치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라며 "수행 과정에서 부가되는 신체-정서적 수준의 안정화는 이러한 핵심 치유과정의 또 다른 선물"이라고 밝혔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고려불화의 지장보살 도상 연구'(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를 통해 6번째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현 스님은 논문에서 동아시아 지장 신앙에 대한 문헌을 정리하고 현존하는 고려불화 지상보살도 25점의 특징과 내용을 살폈다.

스님은 고려불화 지장보살도 좌상 16점(독존 2점+다존 14점)이 모두 반가부좌인 점을 부각시키며, 이것이 지장 신앙의 독립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장삼존에서의 좌우보처가 '오도대신과 〈환혼기〉의 도명' 에서 '도명과 〈지장경〉의 무도귀왕' 으로 변모한 상황을 분명히 하며 "김지장 설화의 도명과 민공일 개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고려불화 지장보살도의 삼존 표현 역시 도명과 무독귀왕임을 자현 스님은 일본 호토지(寶道寺) 소장본과의 비교를 통해 증명했다.

20세기 전반 유학승들의 문헌들을 발굴해 살핀 논문도 눈길을 끈다. **이성수 〈불교신문〉 기획특집부장(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은 **'20세기 전반 유학승의 해외체험과 시대인식 연구 – 기행문과 논설문을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부장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1945년 해방 전까지 해외서 유학했던 스님들의 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유학승들의 시대인식과 그들이 한국사회와 불교에 끼친 영향을 살폈다. 또한 20세기 전반기 유학승들의 명단과 이력, 글쓰기 목록을 부록으로 삽입한 것도 눈길을 끈다.

서울 · 경주캠서 11명 박사 배출
지장 · 산신신앙 변용 과정 살핀
고산 스님 박사 학위 논문 '눈길'
고려불화 지장보살도 분석 통해
자현 스님 6번째 박사학위 받아
20세기 초 유학승들의 글 분석한
이성수 기자 논문, 연구 가치 커

이 부장에 따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한국 승려는 536명에 이르며, 이들이 발표한 글은 1936편에 달한다. 20세기 전반 한국 청년이면서 승려였던 그들은 유학생활에서 경험한 개인적 관심사는 물론 국내외에서 체험한 기행문과 주장을 담은 논설문을 썼다. 불교잡지와 일반 언론을 글쓰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산문, 수필, 기행문 등 다양한 장르를 이용하였다.

20세기 전반 유학승들은 글을 통해 한국불교계 현실을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특히 불교청년의 각성을 요구했다. 식민지 한국불교계가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면모를 갖추려면 불교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교 잡지와 일반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청년 조직의 결성을 주도하며 변화를 구체화했다.

귀국한 유학승들은 한국사회와 한국불교계의 변화와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교육기관에 종사하거나 잡지 발행에 직접 참여해 활약했다. 교단의 종무행정기관에 취업하거나 불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일부는 항일운동에 가담하기도 했다.

이 부장은 "식민지 시대, 한국인이며 승려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해외에서 공부한 젊은 승려들은 근대문명과 신세계를 경험했던 것"이라며 "그들은 전통적인 질서가 유지되는 한국사회와 한국불교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해외에서의 교육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식의 결과를 글쓰기로 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학승들이 귀국 후에 유학 국가에서 습득한 지식과 체험한 근대문명을 한국사회와 한국불교계에 전파하고자 노력했지만, 한국사회와 한국불교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면서도 "그들의 제안이 현재 한국불교가 풀어야 할 숙제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20세기 전반 유학승들의 시대인식과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하이데거 철학과 당대(唐代) 승려 신회의 선사상을 비교 고찰한 논문도 나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경의 씨**는 **'하이데거 철학과 신회 선사상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하이데거 철학과 신회 선사상 사이에 유사성을 밝히고 차이를 논했다.

그는 "하이데거와 신회에 있어서 궁극의 실재인 존재와 무념조차도 해체의 대상이 된다. 하이데거가 전통 형이상학을 존재신론이라 규정하며 비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존재와 신이라는 궁극의 실재의 해체"라면서 "하이데거와 신회는 해체에 있어서 철저함을 보인다. 하이데거 철학과 신회 선사상의 만남은 전통 형이상학적 사유 방식인 존재신론의 철저한 해체에 있다. 분별이성의 해체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존재의 소리(Stimme des Seins)는 요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가을학기 불교 관련 박사 학위자와 전공 논문은 △**진본 스님(선학과 선학전공)의 '무의자 혜심 〈선문염송집〉 연구'** △**자운 스님(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의 '생전예수재의 설행 양상과 재의식 불화 연구'** △**명준 스님(한국불교융합학과 불교한문번역학전공)의 '백파 긍선 〈선요기〉 연구와 역주'** △**혜안 스님(석 · 박사, 한국불교융합학과 불교한문번역학전공)의 '호명의 〈대승법상연신장〉 연구와 역주'** △**임혜정(인도철학과 인도철학전공) '〈요가야갸발까〉(Yogayajnavalkya) 연구'** △**양선희(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수미단 도상을 통한 화엄법계(華嚴法界)의 이상향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등이다.



보물로 지정된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도봉서원 터 발굴 중 출토된 것으로 원래 고려시대 영국사의 터임이 확인됐다.

서원터서 나온 고려불교 의식구 보물됐다

문화재청 8월 24일 지정공고
도봉서원 발굴조사 중 발견돼
고려代 금속공예 절정 보여줘
'예념미타도량참법' 함께 지정

유교 서원 터 발굴 중 고려시대 절터임이 확인됐던 서울 영국사지의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절정을 보여주는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과 조선시대 간행 불경 〈예념미타도량참법〉권1~5 등 총 7권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된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은 조선시대 유학자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기리기 위해 세운 도봉서원의 중심 건물지로 추정되는 제5호 건물지의 기단 아래에서 지난 2012년 수습됐다.

지정된 의식구는 금동금강저 1점, 금동금강령 1점, 청동현향로 1점, 청동향합 1점, 청동숟가락 3점, 청동굽다리 그릇 1점, 청동유개호 1점, 청동동이 1점 등 총 10점이다.

원래 조선시대 도봉서원 터라고 알려진 이곳은 2017년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고려 초기 고승 혜거국사(慧炬國師) 홍소(弘炤, 899~974)의 비석 파편이 발견됐고, 비문의 내용 중 '도봉산 영국사' (道峯山 寧國寺)라는 명문이 판독됨에 따라 이 지역이 고려시대 사찰 '영국사' 터였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출토된 의식공양구들은 고려시대 영국사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기물의 용도나 의례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학술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

함께 보물로 지정된 부산 고불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권1~5는 1474년(성종 5년)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의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개판한 왕실판본 불경이다. 이번 지정 예고된 고불사 소장본은 1474년경에 찍은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간행 이후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태가 되는 자료로서 조선 전기 불교사상과 인쇄문화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자료다.

신성민 기자

월산 대선사 사상 재조명된다

월산문도회 · 대각사상硏 9월 9일 학술세미나

현재 조계종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성림당 월산 대선사(1913~1997)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국사 월산문도회(회장 성타)와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오는 9월 9일 경주 불국사 불교문화회관에서 '월산 대선사 사상의 재조명' 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세미나의 총도감으로는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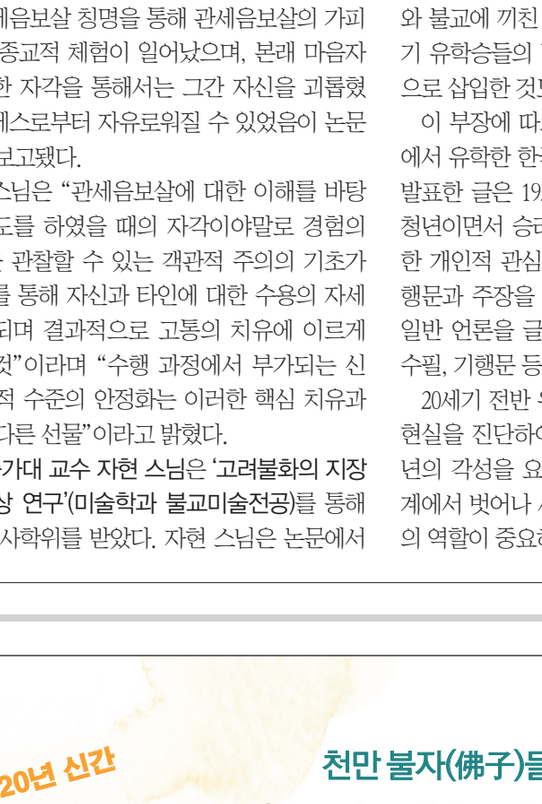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의 기조 발제로 문을 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월산 스님의 사상과 언론관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논문들이 주제 발표된다.

주제 발표로는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월산 큰스님의 생애사' ,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광 스님의 '월산 큰스님의 중도선사상' ,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혜명 스님의 '불국선원 건립의 사상적 의미와 특징' ,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불국사의 강학 전통' , 이재형 법보신문 편집국장의 '월산 대종사와 법보신문' 이 발표된다.

월산문도회 대표 성타 스님은 "월산 스님의 유업을 계승하는 부분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면서 "특히 월산 스님 선사상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연보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통해 현창사업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020년 신간
천만 불자(佛子)들의 필독서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한 무수한 의문, 살아야 할 이유,
모든 해답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존재합니다.

불자로서, 어머니로서,
청춘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부모님께는 자녀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줄 힘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그윽한 자비를 누리시길 빕니다.

이 책 한권으로,
부처님 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박윤미 지음 | 220쪽 | 14,8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으로 귀 법당의 소리가 월등하게 달라지는 현장체험
전화를 주시면 그 부근을 지날때 정확하게 비교만 해드림
▣ 특징 : 권하지 않음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